

● 講 演

# 大韓電氣學會의 새로운 役割

韓 萬 春\*

本稿는 1974年 1月 25日의 本學會 第23回 總會에 있어서의 講演要旨임.

解放後 混亂期에 發足한 本學會는 四半世紀를 지나 는 동안에 歷代 會長님을 비롯한 先輩 任員과 會員諸位의 勞苦의 結晶으로 相當한 發展을 이룩하였다. 그 발자취는 이미 發刊된 電氣學會 25年史에서 밝혀졌거니와 學會誌發刊, 세미나 및 學術發表會 開催, 電氣用語集 및 電氣工學便覽發刊, 調查事業 및 規格制定, 六個 支部活動等 적어도 國內의 工學系의 다른 學會에 比하여는 遜色이 없는 發展을 하고 있다고 自負하지만 아직도 더욱 發展할 餘地가 많다.

오늘 總會에 이어 2日間에 걸쳐 學術發表會를 갖는 데 있어서 理論의인 學術發表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當面한 重化學工業發展, 에너지 및 資源危機克服 및 工業教育改善等에 있어서의 여러 問題點에 對하여 關係當局 및 業體와 學會의 專門家 여러분이 發表를 듣고 討議의 廣場을 가짐으로서 產業協同體制를 強化하는 것도 今後의 發展을 爲한 試圖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.

昨年에 우리가 經驗한 石油波動을 비롯한 소위 Energy chock와 原資材 品貴現象은 全世界에 큰 衝擊을 주었으며 地球上에 局限한 資源의 節約과 效率의 인 利用 및 새로운 可用資源 發掘이라는 大命題가 우리 技術人 앞에 놓여져 있다.

특히 아직도 여러 面에서 後進性을 克服하는 過程에 있으며 앞으로의 成長을 爲하여 努力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試鍊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電氣技術人의 責任 또한 重且大라고 하겠다. 이런 與件에서 우리나라의 電氣學徒와 電氣技術人의 總集結體인 우리 學會는 이번 總會를 契機로 大同團結하고 그 活動을 더욱 強化하므로써 電氣技術人의 存在를 뚜렷히 하는 同時에 우리나라의 發展에 寄與하는 姿勢를 一層 더 가다듬어야 되겠다.

이에 있어서는 昨年 여름 江陵에서 열린 產學協同세미나에서도 言及한바 있지만 새로운 時代에 適應하는 새로운 役割을 學會가 맡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는 우리나라에서 必要한 電氣界의 技術情報와 技術發展의 媒體로서의 學會誌 內容의 刷新, 調查 및 發表活動의 強化, 會員數 增加 및 積極參與 模索, 國際交流 促進 및 產學協同體制의 強化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任員一同의 倍前의 努力으로 아래와 같은 目標을 向해서 나갈때만 可能하다고 할 것이다.

1. 우리나라의 產業發展과 直結되는 學會로
2. 會員이 보람을 느끼고 도움이 되는 學會로
3. 國際的인 廣場에서 遜色이 없는 學會로

\* 正會員: 延世大 產業大學院長(當學會會長·工學博士)